

ORIGINAL ARTIC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6;55(2):114-121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 일 도시 모자가족 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

김가은 · 최희연 · 김의정

### A Study on Socio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 Urban-Dwelling Single Mothers

Ga Eun Kim, MD, Hee-Yeon Choi, MD, and Eui-Jung Kim,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ocio-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variables and the correlation of their factors with quality of life (QOL) in urban-dwelling single mothers.

**Methods** Participants were 195 single mothers living in an urban community in South Korea. Participant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examin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ncluding the following self-rating scales : the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the Korean version of the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OL assessment instrument.

**Results** Regarding socio-demographic variables, high educational level ( $p=0.009$ ), high monthly income ( $p<0.001$ ), living in own house ( $p<0.001$ ), and divorced or separated on economic grounds ( $p<0.001$ ) showed significantly high QOL in single mothers. Age ( $r=0.208$ ,  $p=0.004$ )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QOL ; stress ( $r=-0.254$ ,  $p<0.001$ ), depressive symptoms ( $r=-0.314$ ,  $p<0.001$ ), suicidal ideation ( $r=-0.217$ ,  $p<0.001$ ), and alcohol-related problems ( $r=-0.363$ ,  $p<0.001$ )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QOL.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lcohol-related problems, financial cause of single motherhood, depressive symptoms, and income explained 37.7% of variance in total QOL.

**Conclusion** Interventions to promote QOL of single mothers should reduce the social burden and psychological problems on single mothers. Specifically, interventions providing psychological support should target new single mothers in order to reduce distress in single-mother familie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6;55(2):114-121

**KEY WORDS** Quality of life · Single-parent family · Mothers · Socioeconomic factors · Depression · Alcoholism.

**Received** February 15, 2016  
**Revised** March 21, 2016  
**Accepted** April 24, 2016

**Address for correspondence**

Eui-Jung Kim,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1071 Anyangcheon-ro, Yangcheon-gu,  
Seoul 07985, Korea  
**Tel** +82-2-2650-5164  
**Fax** +82-2-2650-5045  
**E-mail** christie@ewha.ac.kr

## 서 론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에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 이혼, 유기를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며 미혼모가족, 조손가족도 포함된다.<sup>1)</sup> 편부모가족, 모자가족/부자가족, 결손가족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부정적이고 결손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났던 용어들이 현재는 한부모가족이라는 용어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추세이다.

한국은 최근 20년 사이에 핵가족의 보편화, 이혼율의 증가

로 가족형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이혼이나 별거로 한부모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sup>2)</sup> 국내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9.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와 기타가구(모자와 부자 외 다른 세대원이 같이 거주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포함한 전체 한부모가구 중 미혼미성년 자녀가 있으면서 사별, 이혼, 배우자로부터 유기, 가출, 생사불분명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가구는 약 60만 가구이다. 즉, 실질적인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아동(취학 중일 경우 18세 포함)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중 모자로 구성된 가구는 47.3%로 가장 많으며, 부자로 구성된 가구는 19.8%, 모자와 기타가구는 17.8%, 부자와 기타가구는 15.1%로 추정된다.<sup>3)</sup>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크게 열악한 수준으로 2011년 국내 전체 가구의 빈곤율 4.0%에 비하면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은 18.7%로 매우 높으며, 전체 빈곤율이 높아질 때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sup>4)</sup> 이 중 모자가족은 여성가장의 낮은 학력수준, 낮은 취업률과, 임금수준으로 가구소득이 낮아 경제적 문제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자녀양육과 교육 문제였다.<sup>2)</sup>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월 189.6만 원으로 2014년 전체 평균 가구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7% 수준으로, 특히 모자가구는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낮았으며,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보유액도 가장 적었다. 또한 모자가구의 여성가장은 상당수가 경력단절 여성일 것으로 추측되며, 임신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고용안정성이 낮고, 월평균 임금수준도 147.5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부모가구의 주택점유율은 자가비율이 21%로 주거 안정성도 상당히 낮다.<sup>3)</sup> 1990년대 이후 한부모가족 관련 법안의 제정, 지원정책의 추진으로 1990년 전체 모자가구의 4.4%만 국가의 지원을 받던 것에 비해 2010년에는 13.4%로 확대되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한부모가구의 주요한 문제이다.<sup>1,3)</sup>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건강문제, 사회적인 고립, 심리적인 고통, 자녀양육의 부담감, 사회적 편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3,5)</sup> 특히 모자가족의 경우 양부모가족의 여성과 비교하였을 때 우울, 불안, 물질사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sup>6)</sup> Kessler 등<sup>7)</sup>에 의하면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Vinokur 등<sup>8)</sup>도 취업 및 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상태가 우울증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한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모자가구가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건강상태가 나쁘고 우울감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병의원에 가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21%에서 나타나, 전체 국민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경우에 전문적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5.7%로 매우 낮았다.<sup>3)</sup> 즉, 한부모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서는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

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삶의 질을 정의하고 있다. 건강을 정의할 때, 이환율이나 사망률과 같은 수치만으로 나타내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인 배경에 중점을 둔 주관적인 관점을 반영하였다.<sup>9)</sup>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평가함으로써 개인이 지각하는 건강상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부모가족들의 정신건강, 신체적 건강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있었지만 이를 포괄하는 삶의 질에 대해 평가한 연구는 적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과 정책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부모가족이 필요로 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므로,<sup>10)</sup>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가족에게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자가족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상태와 심리적 문제인 스트레스, 우울, 자살사고, 알코올 사용 문제를 평가하고, 어떠한 요인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삶의 질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관계, 환경 영역으로 나누어 각 삶의 질의 하위 영역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였다.

## 방 법

### 대 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양천구 한부모가족의 부모 및 아동의 보건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사회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양천구에 등록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19개 동을 비슷한 지역적 특징에 따라서 3개의 동으로 층화하여 표본으로 추출된 한부모가족 497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대한 교육을 받은 총 30명의 조사원이 표본가구에 대해서 1:1 개별가구 방문면접을 하였다. 첫 번째 방문시 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동의시에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조사대상자가 부재시 다음 주택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 가구에는 총 2회까지 방문하였다. 방문면접 후 설문지를 바로 수거하지 않고 차후 수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291부가 수거되었다. 방문시 조사대상자가 부재하여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 설문지 회수율은 59%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모자가족의 어머니의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여 부자가족, 조손가족, 미혼모가족을 제외한 총 195명의 모자가족의 어머니를 분석하였다.

### 자료 수집 및 도구

자가보고 설문지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주거형태, 한부모가족이 된 원인, 가구 소유 등을 포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한부모가족이 된 원인은 사별, 부부 본인의 문제(배우자 또는 본인의 폭력, 외도, 가출), 가족의 문제(가족 간 불화, 시댁 또는 처가와 갈등), 경제적 문제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또한 삶의 질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문제로 최근 스트레스, 우울증상, 자살사고, 알코올 사용문제를 평가하였다.

###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

WHO는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이하 WHOQOL)를 만들었다.<sup>9)</sup> WHO Quality of Life-Abbreviated form(이하 WHOQOL-BREF)은 WHO-QOL이 역학적 연구로 사용하기에는 문항이 너무 많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간단하면서 정확한 척도로 개발된 것으로,<sup>11)</sup> 본 연구에서는 Min 등<sup>12)</sup>에 의해 공식적인 표준화 과정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된 한국판 WHOQOL-BREF를 사용하였다. 총 2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체적 건강 영역(physical health domain), 심리적 영역(psychological domain), 사회적 관계 영역(social relationships domain), 환경 영역(environment domain)의 4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으로 채점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평가된다.

### 전반적 스트레스 척도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는 Linn<sup>13)</sup>이 개발하였으며 최근 1주일간의 스트레스에 대해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Koh와 Park<sup>14)</sup>이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자가보고식 척도로 총 8문항에 대해 0~9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최근의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

우울증의 1차 선별용 도구로 증상의 존재기간을 기준으로 정도를 측정하므로 역학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을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Cho와 Kim<sup>15)</sup>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한 바 있다. 자가보고식 질문으로 총 20문항에 대해 0점에서 3점으로 응

답하도록 되어 있고,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백 자살생각 척도

이 척도는 Beck 등<sup>16)</sup>이 개발하였으며, 국내에서 Shin 등<sup>17)</sup>이 한국어판으로 번역하고 자가보고 질문지로 변형시킨 Scale for Suicide Ideation을 이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자살사고와 행동과 관련된 각 문항에 대해 기술하는 3개의 문항 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0점에서 2점으로 채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3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한국판

알코올 관련 문제는 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WHO<sup>18)</sup>에서 개발하였고 Kim 등<sup>19)</sup>이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0점에서 3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크다고 평가된다.

### 통계 분석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삶의 질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속형 변수들의 집단 간 차이는 t-test나 one-way analysis of variance를 시행하였으며, 범주형 변수를 포함하는 집단 간 비교는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삶의 질과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삶의 질과 상관성을 보이는 변수들 중,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고 단계선택(stepwise)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치환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이하 SPSS) version 21.0 for Window(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 에서 검정하였다.

## 결 과

###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자가보고식 척도의 결과

모자가족 어머니 195명의 평균 연령은 43세였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집을 소유한 경우에 삶의 질이 더 높았다. 사별, 부부 간 문제, 가족 문제로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보다 경제적인 문제로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에 삶의 질이 더 높았다(표 1).

최근 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41.046 \pm 11.976$ 점, 우울증상의 평균 점수는  $41.923 \pm 8.735$ 점, 자살사고의 평균 점수는  $3.205 \pm 4.492$ 점, 알코올 관련 문제의 평균 점수는  $17.144 \pm 7.133$ 점이었다(표 2).

### 삶의 질, 변수 간의 상관관계

삶의 질과 연령은 의미 있는 양적 상관관계( $r=0.208$ ,  $p=0.004$ )를 보였고, 최근 스트레스( $r=-0.254$ ,  $p<0.001$ ), 우울증상( $r=-0.314$ ,  $p<0.001$ ), 자살사고( $r=-0.217$ ,  $p=0.002$ ) 및 알코올 사용 문제( $r=-0.363$ ,  $p<0.001$ )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3).

### 삶의 질과 변수 간의 회귀분석

삶의 질과 의미 있는 상관성을 보이는 변수들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단계선택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알코올 관련 문제( $\beta=-0.287$ ), 경제적 문제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 $\beta=0.357$ ), 우울증상( $\beta=-0.259$ ), 월수입( $\beta=0.164$ ), 이 4가지를 변

수로 하는 회귀모형이 삶의 질을 설명하는 정도는 37.7%였고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4).

삶의 질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관계, 환경의 4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표 5). 우울증상( $\beta=-0.331$ ), 경제적 문제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 $\beta=0.319$ ), 월수입( $\beta=0.211$ )의 신체적 영역의 삶의 질 설명력은 24.7%였다. 알코올 관련 문제( $\beta=-0.386$ ), 자살사고( $\beta=-0.142$ ), 경제적 문제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 $\beta=0.219$ ), 우울증상( $\beta=-0.333$ ), 스트레스( $\beta=0.254$ )가 심리적 영역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정도는 40.6%였고, 연령( $\beta=0.314$ ), 알코올 관련 문제( $\beta=-0.264$ ), 스트레스( $\beta=-0.286$ ), 경제적 문제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Table 2.** Self-rating scale scores of participants

	Mean $\pm$ SD
GARS score	$41.046 \pm 11.976$
CES-D score	$41.923 \pm 8.735$
SSI-Beck score	$3.205 \pm 4.492$
AUDIT-K score	$17.144 \pm 7.133$

SD : Standard deviation, GARS :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SI-Beck : Scale for Suicide Ideation, AUDIT-K : 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5)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QOL (mean $\pm$ SD)	p value
Age	195		
	Mean $\pm$ SD ( $42.74 \pm 7.787$ )		
Education level			0.009*
Middle school graduate	13 (6.67)	$68.31 \pm 11.20$	
High school graduate	131 (67.18)	$70.93 \pm 10.96$	
Above college	51 (26.15)	$75.78 \pm 8.71$	
Occupation			0.167
House wife, student	28 (14.36)	$68.79 \pm 13.64$	
Production	122 (62.56)	$72.20 \pm 9.96$	
Indoor job	45 (23.08)	$73.58 \pm 10.16$	
Monthly income (10 thousand won)			0.000*
<100	30 (15.38)	$66.73 \pm 11.99$	
100-199	83 (42.56)	$71.35 \pm 10.68$	
200-299	49 (25.13)	$72.06 \pm 9.10$	
$\geq 300$	33 (16.92)	$78.48 \pm 8.33$	
Residence			0.000*
Owner	23 (11.79)	$80.52 \pm 7.80$	
Lease	115 (58.97)	$72.03 \pm 9.90$	
Monthly lent	32 (16.41)	$72.78 \pm 9.41$	
Rental	25 (12.82)	$63.24 \pm 11.37$	
Reason for single motherhood			0.000*
Bereavement	53 (27.18)	$69.45 \pm 11.77$	
Divorce due to husband problem	59 (30.26)	$69.69 \pm 10.64$	
Divorce due to family problem	35 (17.95)	$71.34 \pm 8.87$	
Divorce due to economic problem	48 (24.62)	$78.23 \pm 7.97$	

\* :  $p<0.05$ . SD : Standard deviation, QOL : Quality of life



**Table 3.** Correlations analysis among sociodemographic, psychological variables and QOL in single mothers

	WHOQOL-BREF					6. Age	7. Stress	8. Depressive symptoms	9. Suicidal ideation	10. Alcohol problems
	1. Total	2. Physical	3. Psychological	4. Social	5. Environment					
1	1	0.802†	0.814†	0.687†	0.858†	0.208†	-0.254†	-0.314†	-0.217†	-0.363†
2		1	0.489†	0.473†	0.522†	0.096	-0.352†	-0.307†	-0.098	-0.106
3			1	0.508†	0.640†	0.158*	-0.074	-0.290†	-0.261†	-0.379†
4				1	0.461†	0.368†	-0.413†	-0.341†	-0.149*	-0.295†
5					1	0.143*	-0.058	-0.106	-0.203†	-0.374†
6						1	-0.241†	-0.346†	-0.111	-0.226†
7							1	0.532†	0.034	0.051
8								1	0.254†	0.266†
9									1	0.027

\*: p&lt;0.05, †: p&lt;0.01. QOL : Quality of life, WHOQOL-BREF : Korean version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QOL-Abbreviated form

경우( $\beta=0.239$ )가 사회적 관계 영역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정도는 36.8%였다. 알코올 관련 문제( $\beta=-0.323$ ), 경제적 문제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 $\beta=0.208$ ), 자살사고( $\beta=-0.181$ ), 교육수준( $\beta=0.169$ )이 환경 영역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정도는 24.9%였다. 모든 세부 모형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는 2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고 찰

본 연구는 일 도시 한부모 모자가족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심리적 문제 중 어떠한 요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자가족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으며, 연령은 사회적 관계 영역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도 많아져서 연령이 어린 자녀를 가진 한부모에 비해 양육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적을 것이며,<sup>20)</sup> 한 부모가 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응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충분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구직 가능성이 높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일반적인 경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안정적인 직업은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도 연관이 있다.<sup>21)</sup> 한부모가족 어머니는 생계부양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자존감 회복에 중요하다.<sup>22)</sup> 높은 교육목표와 교육수준을 가진 한부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이는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sup>23)</sup> 삶의 질의 하위 영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환경 영역의 삶의 질이 높았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 사회적 지지의 정도도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가족 간 결속력이 높고 가족 야외활동이나 여가 문화 등 가족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보고와 일치한다.<sup>20)</sup> 반면에 낮은 교육수준을 가질수록 수입 및 가계소득이 낮아 육아 비용에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자녀양육이나 교육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모자가족에서 임대, 월세, 전세보다는 자신의 집을 소유한 경우와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더 높았으며 단계선택 회귀분석에서도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삶의 질과 하부 영역 중 신체적 영역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및 월세나 임대의 주거형태는 경제력과 관련이 있는데, 한부모가족의 어머니는 직업이 있다

**Table 4.** Associations of quality of life with variables by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B ± SE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	Adjusted R <sup>2</sup>
Alcohol problems	-0.390 ± 0.097	-0.287	-4.031	<0.000	0.377
Financial cause of single motherhood	7.562 ± 1.452	0.357	5.209	<0.000	
Depressive symptoms	-0.295 ± 0.081	-0.259	-3.659	<0.000	
Monthly income	4.717 ± 2.014	0.164	2.342	0.021	

SE : Standard error

**Table 5.** Associations of domains in QOL with variables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mains of QOL	Variables	B ± SE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p	Adjusted R <sup>2</sup>
Physical	Depressive symptom	-0.140 ± 0.032	-0.331	-4.388	0.000	0.247
	Financial cause of single motherhood	2.512 ± 0.581	0.319	4.327	0.000	
	Monthly income	2.258 ± 0.813	0.211	2.777	0.006	
Psychological	Alcohol problem	-0.139 ± 0.025	-0.386	-5.578	0.000	0.406
	Suicidal ideation	-0.077 ± 0.038	-0.142	-2.058	0.042	
	Financial cause of single motherhood	1.236 ± 0.377	0.219	3.281	0.001	
	Depressive symptom	-0.101 ± 0.026	-0.333	-3.848	0.000	
	Stress	0.055 ± 0.018	0.254	3.126	0.002	
Social	Age	0.091 ± 0.020	0.314	4.559	0.000	0.368
	Alcohol problem	-0.072 ± 0.019	-0.264	-3.854	0.000	
	Stress	-0.047 ± 0.011	-0.286	-4.128	0.000	
	Financial cause of single motherhood	1.022 ± 0.296	0.239	3.457	0.001	
Environment	Alcohol problem	-0.176 ± 0.041	-0.323	-4.321	0.000	0.249
	Financial cause of single motherhood	1.764 ± 0.636	0.208	2.775	0.006	
	Suicidal ideation	-0.149 ± 0.060	-0.181	-2.469	0.015	
	Education	1.453 ± 0.638	0.169	2.276	0.024	

QOL : Quality of life, SE : Standard error

고 하더라도 수입이 적은 경우가 많다. 이전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가능성이 적으며, 수입이 낮거나 무직인 경우 의사, 치료방법 선택, 건강관리 방법 등을 선택할 때 제한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sup>24)</sup> 한부모가족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정신 건강 문제에 중요하다는 연구들과 같은 맥락의 소견이다.<sup>3,25)</sup>

사별, 부부 본인의 문제, 가족 문제로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보다 경제적 이유로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는 전체적 삶의 질뿐만 아니라 네 가지 삶의 질의 하위 영역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 영역 모두에서 삶의 질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련 있는 교육 정도, 주택 소유 형태 및 월소득과 경제적 이유로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의 사회적인 상황을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과거 사별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주로 발생하였던 것과 달리 최근 20년 사이에는 이혼, 별거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였다. 특히 경제적 사유로 이혼하는 비율이 1980년 3.6%에서 2000년 10.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제금융 경제 위기가 있던 1998년에는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이혼이 1997년에 비해 4.4%에서 6.6%로 증가하면서<sup>26)</sup>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었다. 여성이 남편에게 경제적 의존성이 줄고 특히 부인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을 경우, 남편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남성이 돈을 벌고, 부인은 가사일을 주로 한다는 한국의 전통적인 남녀 간의 역할 분업의 안정성을 위협하여 부부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이혼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sup>27)</sup>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경제적 지원이 있는 경우의 여성들이 독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사유로 인해 이혼한 경우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다. 또한 한부모 모자가족의 경우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이혼을 부정적인 경험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많은 여성들이 자원이 더 적을지라도 이혼 이후에 경제적 부분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더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느낀다는 보고가 있다.<sup>28)</sup> 경제적 사유로 인해 이혼한 경우 이전에 겪었던 경제적 문제들이 정리가 되고, 이혼까지 이르게 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문제를 고찰해 봤을 때, 알코올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삶의 질이 낮았을 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관계, 환경 영역 세 가지 하위 영역에서의 삶의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에서 여성 문제음주자는 이혼이나 남편의 폭력, 도박, 남편과의 갈등 등 결혼생활이 힘든 경우들이 많았으며, 이혼이나 가족 중 중요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험 등 외상적 생활 사건으로 알코올을 남용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sup>29)</sup> 또한 남성 문제음주자들은 대인관계를 위한 목적이 주요 음주 동기였던 것에 비해 여성 문제음주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도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를 시작하고, 우울증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알코올중독이 된다고 보고하는 등 여성의 음주는 정서적 요인과 관련이 많다.<sup>29,30)</sup> 여성은 삶의 질이 낮을수록 음주 문제가 커지며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여성 문제음주자의 경우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기 쉬우므로 혼자 몰래 마시게 되고, 더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모자가족의 어머니는 이전 남편과의 갈등,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우울, 외로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 양육 부담감, 경제적 문제 등의 스트레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알코올을 남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삶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울증상이 심할수록 전체적인 삶의 질이 낮았으며 심리적, 신체적 영역의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eshensel 등<sup>31)</sup>의 연구에서 한부모가족의 어머니는 연령, 수입, 교육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모든 여성들 가운데 우울증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우울증상이 심할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이 감소되며, 기분장애가 있는 경우 사회적, 감정적, 신체적 영역에서의 기능에 장애가 생긴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sup>32)</sup>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신체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삶의 질은 더 낮아진다. 이전 연구에서 한부모가족의 어머니는 기혼 여성이나 일반 인구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가 더 낮는데, 중요한 위험인자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지지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되었다.<sup>6,33)</sup> 한부모가족의 어머니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울증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신체적 건강상태도 저하되므로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살사고는 심리적, 환경 영역 두 가지 하위 영역에서의 삶의 질 저하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인구에서도 자살사고는 낮은 건강 관련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sup>34)</sup> 일반인보다 한부모가족의 부모는 자살사고의 척도점수가 높는데,<sup>35)</sup> 한부모가족들에게서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자살의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자살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일 도시지역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한부모 모자가족의 어머니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지역적인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편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양부모가족의 어머니를 대조군으로 이용한 분석과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연구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대규모의 무작위 표본으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가보고식 설문지에 의해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참여자가 문제를 과장하거나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단면적 연구이기 때문에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장기적인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모자가족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삶의 질을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였고, 삶의 질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영역으로 나누어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심리적 문제를 알아본 연구로서 앞으로의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삶의 질의 하위 영역에 중복되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상황을 나타내주는 교육 정도, 월 수입, 주택 소유 형태와 경제적인 사유로 이혼한 경우가,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심리적 문제를 고려하여도, 전체적인 삶의 질뿐만 아니라 여러 삶의 질의 하위 영역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또한 우울증상과 알코올 문제도 상당 부분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어, 경제적인 문제와 우울증상 및 알코올 문제가 한부모 모자가족의 어머니의 삶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및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알코올 문제, 우울증상 및 경제적인 문제는 한부모 모자가족의 삶의 질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한부모 모자가족의 어머니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알아보는 것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

책이나 서비스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신건강문제를 비롯한 한부모 모자가족의 어려움을 조기에 평가하여 이차적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중심 단어 :** 삶의 질 · 한부모가족 · 어머니 · 사회경제적 문제 · 우울증 · 알코올.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 REFERENCES

- Jang HK. Social support policy for single mothers. No.: 11-1060020-000031-01.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2001.
- Ok SW, Sung MA, Huh JW. Family life issues of poor female earners after Korean economic crisis. J Korean Home Econ Assoc 2001; 39:1-13.
- mogef.go.kr [homepage on the Internet]. A study on the status of single-parent familie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ited 2016 Mar 22]. Available from: <http://withmom.mogef.go.kr/board/notice/2237?url=L2JvYXJkL25vdGljZT9udWxs&category=>.
- Kim MG, Kim TW, Woo SH, Lee SH. Poverty statistical yearbook 2012. No.: 2012-37.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12.
- Weissman MM, Leaf PJ, Bruce ML. Single parent women. A community study. Soc Psychiatry 1987;22:29-36.
- Benzeval M. The self-reported health status of lone parents. Soc Sci Med 1998;46:1337-1353.
- Kessler RC, Turner JB, House JS. Intervening process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health. Psychol Med 1987;17: 949-961.
- Vinokur AD, Price RH, Caplan RD. Hard times and hurtful partners: how financial strain affects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employed persons and their spouses. J Pers Soc Psychol 1996; 71:166-179.
- World Health Organization [homepage on the Internet]. Geneva: Programme on Mental Health WHOQOL User Manual [cited 2016 Jan 13]. Available from: [http://www.who.int/mental\\_health/evidence/who\\_qol\\_user\\_manual\\_98.pdf](http://www.who.int/mental_health/evidence/who_qol_user_manual_98.pdf).
- Kim YW. The current state of single-parent families: welfare needs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welfare Policy Forum 2012;187:50-59.
- Developmen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QOL-BREF quality of life assessment. The WHOQOL Group. Psychol Med 1998; 28:551-558.
- Min SK, Kim KI, Lee CI, Jung YC, Suh SY, Kim DK. Development of the Korean versions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nd WHO-QOL-BREF. Qual Life Res 2002;11:593-600.
- Linn MW. A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GARS) Scale. Int J Psychiatry Med 1985-1986;15:47-59.
- Koh KB, Park JK.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Scale. Korean J Psychosom Med 2000;8:201-211.
- Cho MJ, Kim KH.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 (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93;32:381-399.
- Beck AT, Kovacs M, Weissman A.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 Consult Clin Psychol 1979;47:343-352.
- Shin MS, Park KB, Oh KJ, Kim ZS. A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 Clin Psychol 1990; 9:1-19.
- Saunders JB, Aasland OG, Babor TF, de la Fuente JR, Grant M. Development of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WHO Collaborative Project on Early Detection of Persons with Harmful Alcohol Consumption-II. Addiction 1993;88:791-804.
- Kim JS, Oh MK, Park BK, Lee MK, Kim GJ. Screening criteria of alcoholism by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in Korea. J Korean Acad Fam Med 1999;20:1152-1159.
- Byun WS, Song DY, Kim YR. A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the family type. No.: 240-10.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2002.
- Bambra C. Yesterday once more? Unemployment and health in the 21st century.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10;64:213-215.
- Ok SW, Choi SE, Kwon SY, Kang EG. The social support network of divorced single mother families. J Korean Home Manag Assoc 2004;22:181-191.
- Norton AJ, Glick PC. One parent families: a social and economic profile. Family Relat 1986;35:9-17.
- Feinstein J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Milbank Q 1993;71:279-322.
- Kim DS, Jeon GS, Jang SN. Socioeconomic status, social support and self-rated health among lone mothers in South Korea. Int J Public Health 2010;55:551-559.
- Suk HH, Kim DH, Lee HG, Sim SJ. Korean social trends 2009. No.11-1240245-000014-10. Daejeon: Korea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2009.
- Jo SH. Probability of divorce of the unemployed. Family Cult 1999; 11:25-45.
- Graham H. Being poor: perceptions and coping strategies of lone mothers. In: Brannen J, Wilson G, editors. Give and take in families: studies in resource distribution. London: Allen and Unwin;1987. p.56-74.
- Lim SY, Cho HS, Lee YH. A case study about female alcoholic's alcohol addictive process. Korean J Clin Psychol 2005;24:869-886.
- Dixit AR, Crum RM. Prospective study of depression and the risk of heavy alcohol use in women. Am J Psychiatry 2000;157:751-758.
- Aneshensel CS, Frerichs RR, Clark VA. Family roles and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J Health Soc Behav 1981;22:379-393.
- Trivedi MH, Rush AJ, Wisniewski SR, Warden D, McKinney W, Downing M, et al.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out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a STAR\*D report. J Clin Psychiatry 2006;67:185-195.
- Targosz S, Bebbington P, Lewis G, Brugha T, Jenkins R, Farrell M, et al. Lone mothers, social exclusion and depression. Psychol Med 2003;33:715-722.
- Goldney RD, Fisher LJ, Wilson DH, Cheok F. Suicidal ideat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community. Med J Aust 2001;175: 546-549.
- Kim SI, Kim EJ. Mental health and influencing social factors of Parents in single parent families living at an urban communit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2;51:422-429.